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1. 09. 3~ 9 (6박7일)
3. 출장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4. 출장목적: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Global Economic Governance: What role for Latin America?”에 발표자로 참석

II. 활동 내용

1. 주요 참가자

Alfonso Lopez Chau Nava, Director, Central Bank of Peru, Peru

Alvaro Ons, Director for Economic Affairs, Integration and Mercosur, Foreign Ministry, Uruguay

Armando Chaguaceda, Political Scientist and Historian, Co-ordinator Working Group 'Anticapitalismos & sociabilidades emergentes', Latin American Council of Social Sciences (CLASCO), Cuba

Detlef J. Kotte, Consultant, Former Head Macroeconomic & Development Policies Branch of UNCTAD, Geneva

Diana Tussie, Latin American Trade Policy Network / FLASCO, Argentina

Esteban Kiper,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Buenos Aires, Argentina(tbc)

Francis Xavier Rathinam, Fellow,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India

Hernán Frigolett Córdova, Economist, Aserta, Chile

Hubert René Schillinger, Coordinator, Dialogue on Globalization, Friedrich-Ebert-Stiftung,

Germany

Hugo Noé Pino, Executive Director Central America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ICEFI), Guatemala, Former Director of the Central Bank of Honduras

Jaime Cesar Coelho, Professor, 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 Visiting Researcher,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IPEA), Brazil

Jean Paul Guevara,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Bolivia

Jorge Eduardo Navarrete, Professor, University of Mexico (UNAM), Former Ambassador, Mexico

Luis Zambrano Sequín, Professor for Economic Theory, Catholic University, Andrés Bello, Venezuela

Martin Abeles, Economist, CEPAL, Argentina(tbc)

Mercedes Isabel Botto, Principal Research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FLASCO, Argentina

Pablo Stefanoni, Nueva Sociedad

Rafael Pardo, Director, Partido Liberal, Columbia

Rogelio Ramírez de la O, Economist, Director ECANAL, México

Sergio Mendonça, DIEESE, Brazil

Svenja Blanke, Director, Nueva Sociedad

Zirahuen Vilhamar, Researcher, FES Mexico

2. 주요 회의 내용

□ Session I: G20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reform: where do we stand two years after the crisis?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이 지난 것과 그동안 G20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등장하였는데 실제로 세계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 그리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를 점검하는 세션이었음.
-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표들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아직 충분치

않으며 G20의 역할이 신흥국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협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거나 의미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으며 앞으로도 G20가 안정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음.
- G20의 대표절이나 지속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큰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다수가 비판적인 견해를 보임.

Session II: Global Monetary System Reform

- 현재 미국 달러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통화체제가 이를 뒷받침하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이후에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누적되어온 것을 지적.
- 개선 방향으로 달러체제의 수선, 다극화체제의 도입, SDR을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국제통화 창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이 토론됨.

Session III: Global Trade Imbalances

-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흑자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토론.
-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이유는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규율하는 원칙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원칙이 부재하며 관리기구도 없는 것이 원인.

- WTO나 IMF 등의 국제기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케인즈의 제안에 대해서도 참고해볼 필요.

Session IV: Problems in Macroeconomic Stabilization

-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환경에서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상호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국가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자국의 힘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우며 국제공조가 필요.
- 그러나 강제적인 공조수단이 없으므로 모두 자발적으로 공조에 참여해야 하므로 그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G20 시스템의 한계가 됨.
-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의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세계경제를 동요하게 하고 있음.

Session V: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 통화 및 환율정책은 모든 국가들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근래에와서 자본의 이동성이 확대되어 특히 신흥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에 어려움이 야기됨.
- 미국의 양적완화(QE1,2) 정책이 두 번씩 시행되고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도 가능하다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신흥국들은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재도입을 추진.
- 자본이동 규제에 대해서는 발달된 금융산업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

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 맡겨둘 경우 신흥국들의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됨.

Session VI: The Asian Agenda at Cannes

- 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와 자본이동에 따른 통화 및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대안제시임.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흑자국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며 먼저 책임을 수행하고 타인의 동참을 요구해야하며 미국의 통화스왑을 통한 한국지원이 대표적인 사례.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미국과 양자적으로만 합의하는 형식을 거치기보다 일반화하여 글로벌 통화스왑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끝>